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분을 찾았던 목적은 참으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바라는 그 무엇을 얻고 싶어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악의와 속임수로 그분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주님을 찾아가 드렸던 제자들의 이 말입니다.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마르 1,37)

사실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 활동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하느님을 찾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찾는다’의 결말은 무엇일

까요? 그것은 내가 찾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찾는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면, 나 자신의 경우를 되돌아보며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봐야 하겠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가톨릭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번역하여 가사를 쓰신 곡입니다. “나는 주님을 주님을 찾습니다. 그 얼굴 그 모습을 형제들 가슴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 사랑, 기쁨. 그러나 무엇을 했나요?” 주님을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안에서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판결 기준도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주님은 아니 계신 곳 없이 곳곳에 계시겠지요.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상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고통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서 우리의 눈길과 손길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 그분과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을 찾는 데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항상 당신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또한 당신을 찾은 후에도 더욱 당신을 찾아 나아가게 하소서.”(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개운동 본당 황재모 안셀모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알려줍니다. 인간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 주십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낮게 하시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미움이나 편견, 선입견으로 고립된 나만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본기도

†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욥기 7장 1절-4절.6절-7절

안 내 : 욥은,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뿔팔이와 같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묵 상 :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세 생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 곧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희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답송 :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2독서 : 코린토 1서 9장 16절-19절.22절-2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묵 상 :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하느님 나라가 되고 복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장 29절-39절

강 론 :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 후 묵상

열병이 난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에 의해 병이 낫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이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려 지치실텐데,
끼니도 제 때 찾아 드시지도 못하셨을 텐데도 말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모든 이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건, 가진 자든 빈곤한 이든 간에
사랑스럽고 안타깝기만 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요?

<침묵>

어려운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기쁘게 봉사하기보다는
판단과 선입견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만나면 무엇 때문인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바른 소리 한번 못 뱉어내는 병어리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닮아 기쁘게 봉사하고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불의에 하느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공소사목 성금

김득순님

10,000원

석정숙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7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2018년 대신학교 입학생

- 김민우 베네딕도(춘양 본당)
- ※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가흥동 새 본당 첫 미사

- 일시 : 2월 4일(주일) 11:00
(본당 설립 : 1월 16일)
- 장소 : 영주 가흥동 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주임신부 : 정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

■ 여성연합회 총회 및 연수

- 일시 : 2월 7일(수) 10:00 - 16: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본당 여성연합회 회원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1월 30일(화)까지 사목국

■ 제8기 안동교구 신양대학 신입생 모집

- 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 원서교부 : 본당신부님 혹은 교구 홈페이지
- 입학정원 : 50명
- 수업료 : 18만원(입학금 3만원 포함)
- 과정 : 구약성경 입문, 신약성경 입문,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사, 교회론, 윤리신학, 전례학, 교회법, 영성신학 (2년 과정)
- 교육장소 : 안동교구청 1층 강당
- 문의 및 접수 : 2월 8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북부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2월 2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2월 24일/ 3월 10일/ 3월 24일/
4월 7일/ 4월 21일/ 5월 12일/
5월 26일/ 6월 2일 - 총 8회
- 장소 : 휴천동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북부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북부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신청 : 2월 14일(수)까지 사목국

■ 2018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 대상 :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방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접수
- 등록금 : 1인 50,000원(1년)
- 등록기간 : 2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2018년 안동교구 "여학생 수도 성소자" 등록

- 대상 :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여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금 : 1인 50,000원
- 등록기간 : 2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안동, 의성지구 구역·반장연수

- 날짜 : 2월 11일(주일) 의성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청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여성),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꽃감 판매

- 건시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위기와 근심과 어려움에 빛 비추기

오래된 상처

239. 가정에 지난 시절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관계를 맺는 방식에 성숙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불행하게 보낸 청소년기는 개인적 위기의 원인이 되어 결국 혼인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모든 이가 정상적으로 성숙한다면, 위기는 덜 발생하고 덜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이는 청년기에 이루어졌어야 할 성숙을 40대에 비로소 이룹니다. 어떤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현실을 왜곡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멋대로 생각하는 특정한 [성장] 단계에 고착된 사랑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울며 떼를 쓰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이는 대립, 신랄한 비난, 상대방을 탓하는 습관, 감정의 논리, 환상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춘기 단계에 고착된 사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자신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240.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해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의 나쁜 관계가 되풀이 되어 혼인 생활을 망치게 됩니다. 미루어져 온 해방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부가 저마다 이러한 자

신의 지난날에 대한 치유의 길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치유의 필요성을 깨닫기,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하기, 도움을 받아들이기, 긍정적인 동기를 찾기, 모든 것을 늘 새롭게 시도해 보기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자기에게 솔직해져서 자신의 사랑하는 방식에 이러한 미성숙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이 있음이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단지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숙해지거나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파경과 그 이후의 동행

241.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녀의 선익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심각한 불의나 폭력 또는 만성화된 무례함에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이는 약자인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을 학대와 폭력, 모욕과 착취, 무시와 무관심에 따르는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거는 화해를 위한 모든 타당한 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 연후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될 것입니다.”

242. 시노드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별거한 이들, 이혼한 이들, 버림 받은 이들과 사목적으로 함께하는 데에는 특별한 식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당한 별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버림 받은 이들, 또는 배우자의 학대로 함께 살 수 없게 된 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불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은총은 이 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 특별 상담 센터를 세워서라도 화해와 중재를 위한 사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흔히 혼인의 신의를 증언하는,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은 이들은 성찬례 때에 그들의 삶의 형태를 지탱해 주는 양식을 찾도록 격려되어야 됩니다. 지역 공동체와 목자들은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자녀가 있거나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정의 붕괴는 가난한 이들의 경우에 훨씬 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자원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가난한 이들은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존엄이 모든 종류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참 좋은 당신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한다. 특별한 지향이 있을 때는 더 열심이다. 날마다 성체조배에 화살기도 수천 번, 묵주기도 이십 단은 기본이다. 정성들여 성경필사도 한다. 물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일이 응답해 주신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육 년 전 큰 애가 직장을 그만 두고 내려왔을 때였다. 아내가 꾸준히 기도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재취업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도 서로 말을 잃어갔다.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선언했다.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하느님이 행복할 때까지 기도해야겠어요.” 어이가 없었다. “당신이 야곱도 아니고 무슨 수로 그분을 행복시킨다는 게요?” “두고 봐요.” 아내는 결연한 자세로 성당에 갔다.

정확히 일주일 뒤 큰 애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전번 직장 상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같이 근무하자는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거짓말처럼 떠났다. 어떻게 하느님을 행복시켰는지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 거듭거듭 감사를 드리던 아내가 기도에 계속 몰입했기 때문이다. 새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청하고 어느새 거기서 참한 짝을 만나게 해 달라는 내용까지 슬쩍 끼워 넣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종종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조용하던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다. 자연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전 신도가 술집을 없애달라고 합심기도를 이어갔다. 마침 화재로 술집이 완전 잿더미가 됐다. 주인과 종업원들이 기도 탓이라고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며 변상을 요구했다. 목사와 신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말이 되는 소릴 하시오. 기도한다고 그리 될 리가 있소.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이지.”

그 신도들의 주장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명색이 기도 단체 봉사자다. 회장도 십 년 넘게 하고 있다. 때때로 기도의 은혜를 넘치게 강조하며 기도회를 이끌지만 정작 기도에 대한 확신은 긴가민가하다. 묵상은 자주 하지만 기도에 열렬히 매달려본 적은 없다. 아내는 똑똑하고 과학을 전공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없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는 무조건 무조건이다. 아마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곁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

아내의 주장대로 큰 애의 취업이나 우리 집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간 것이 기도 덕분 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변한다는 것이다. 노래하면서 노래를 알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운다더니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녹아드는 모양이다. 아내가 예뻐졌다. 그 많던 근심도 어디로 사라졌다. 갈수록 사랑스럽다. 덩달아 나도 편안하다. 엄마의 기도에 거부감을 갖던 아이들도 이제는 고마워한다. 기도해달라고 먼저 부탁도 한다.

정초가 되자 아내가 더 바빠졌다. 둘째의 승진시험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하느님을 더 성가시게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권장하신 기도 방법을 얘기했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루카 11.8)

저녁 때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성가를 부르며 몸을 흔들고 다가왔다. “오늘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 맞춰보세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건가. 시답잖은 표정으로 지켜보는데 아내가 만세를 불렀다. 둘째가 특진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시험이고 뭐고 볼 필요가 없어졌다.

서재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체통도 없이 어째 한나절 만에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안에서 따스한 음성이 들렸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록 3.20)